

큰성님(伯兄一)은 과양당<sup>1)</sup> 셋성님(仲兄一)은 정의(旌義) 서낭당.<sup>2)</sup> 말жат아시(末弟) 대정(大靜) 광정당(廣靜當), 식성제(三兄弟)뵈네다.

황바드리<sup>3)</sup> 짐통경(金通精)이가 들어와 토성(土城)싸고 호호마다 제(灰) 닛뵈(五升) 비(箒) 훈 즐리씩<sup>4)</sup> 세금(稅金)을 받아, 토성(土城) 우의<sup>5)</sup> 제(灰)는 끌고<sup>6)</sup> 뭍폴리<sup>7)</sup>에 비는 돌아매여 채를 주어 돌리니 시상(世上)이 왁왁허여가난<sup>8)</sup> 과양당(廣壤當) 서낭당 광정당(廣靜當) 식성제(三兄弟)가 짐통경(金通精)을 심으레 간다.<sup>9)</sup>

짐통경(金通精)이가 무쇄방석을 바당(海)데레 덱겨<sup>10)</sup> 놀아가 끌아앗이니,<sup>11)</sup> 스신요왕(四神龍王)은 새의 몸이 뵈여 받석을 심어 등기니<sup>12)</sup> 이젠 짐통경은 매가 뵈여 놀아난다. 과양당(廣壤當) 큰성님(伯兄)이 조롬에<sup>13)</sup>조차 올라가 짐통경이가 목을 들른 틈에 비늘 틈으로 찢언 죽입네다.

이젠 식성제(三兄弟)가 활을 쏘와 촛지흙 땅을 갈르느니, 큰성님은 활을 쏘난 정의(旌義) 대정(大靜) 새에<sup>14)</sup> 저<sup>15)</sup> 정의(旌義) 대정(大靜) 좁<sup>16)</sup>을 갈르고, 셋성님(仲兄) 쏜 활은 모관(牧內)<sup>17)</sup> 정의(旌義) 곱을 갈르고 말жат아신(末弟) 모관(牧內) 대정(大靜) 새엘 쏘아 모관 대정 곱을 갈라, 큰성님은 모관(牧內) 과양당(廣壤當)에 좌정(坐定)하고 셋성님(仲兄)은 정의(旌義) 서낭당 좌정하고 말жат아신(末弟) 대정(大靜) 광정당 좌정허여 모관(牧內) 정의(旌義) 대정(大靜) 촛지흙네다.

- 安德面 倉用里 男巫 高昌鶴 口誦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774-775.

1) 제주시 이도동(二徒洞) 소재당(當).  
 2) 표선면 성읍리의 당.  
 3) 애월면 고성리(涯月面古城里).  
 4) 자루씩.  
 5) 위에.  
 6) 끌고.  
 7) 말꼬리.  
 8) 캄캄해가니.  
 9) 잡으려 간다.  
 10) 던져.  
 11) 날아가 끌아 앓으니.  
 12) 잡아당기니.  
 13) 공무니에 . 뒤에.  
 14) 사이에.  
 15) 떨어져.  
 16) 금. 경계.  
 17) 현 제주시.